

방관과 해를 다인 정치

양이원영 보도자료



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02호 | E. yangyi.assembly@gmail.com | T. 02-784-8834 | F. 02-6788-6740

배포일 : 2021년 10월 11일(월)

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, 정부 대금미지급으로 중소기업 도산위기

- 공공기관 중심 기반조성 100%, 사업화지원 90% 예산 집행... 중소기업 중심 R&D사업 예산집행 18%
- 양이원영 의원 “정부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 어처구니 없어...”

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(비례대표,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)이 중소벤처기업부(이하 중기부)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의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대금 미지급으로 한 때 R&D 사업에 참여 중인 업체들이 한 때 경영난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.(#.자료 첨부)

중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실증 R&D 사업에 참여한 기업 대상 예산 집행율은 전체 18%에 불과해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. 반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반조성(인프라)사업, 사업화지원 사업 참여 사업자의 경우 7월 기준으로 각각 편성된 예산의 100%와 90%가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.

사업비 미집행 사유에 대해 중기부에서는 코로나-19로 인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수 부족으로 자금배정이 중단되어 사업비가 부족해져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. 이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양이원영 의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9월 초, 급히 사업비를 확보해 실증 R&D 사업의 예산집행율을 85%까지 높였다.

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“함께 사업주체로 참여한 사업자 중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대금을 집행받은 반면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지급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다” 며, “국회의원 한 명의 문제제기로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은 국가 행정절차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” 이라고 지적했다. 또한 “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에게 대금을 연체해 도산위기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일” 이라고 덧붙였다. 끝

[#. 첨부자료-1]

□ 2021년 8월 말 기준 자금 집행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수행 기관(기업)	예산	월별 실적행액					21년 9월말 기준	
			5월	6월	7월	8월	9월	실집행	실집행률
기반조성 (인프라)	고등기술 연구원연구조합	685	475	-	210	-	-	685	100%
	(주)○○○○	929	-	596	333	-	-	929	100%
	한국생산 기술연구원	186	-	120	66	-	-	186	100%
사업화지원	한국생산 기술연구원	930	-	465	372	-	-	837	90%
	(재)울산지역 사업평가단	70	-	35	28	-	-	63	90%
실증 R&D	○○○○(주)	230	25	-	-	16.8	153.7	195.5	85%
	○○○○○(주)	138	25	-	-	16.8	75.5	117.3	85%
	(주)○○○○	280	25	-	-	16.8	196.2	238	85%
	(주)○○○	280	25	-	-	16.8	196.2	238	85%
	(주)○○○○	232	25	-	-	16.8	155.4	197.2	85%
	(주)○○○○	232	25	-	-	16.8	155.4	197.2	85%
	(주)○○○○○	232	25	-	-	16.8	155.4	197.2	85%
	(주)○○○○○○	232	25	-	-	16.8	155.4	197.2	85%
합 계		4,656	675	1,216	1,009	134.4	1,243.2	4,277.6	92%

[#. 첨부자료-2]

□ 2021년 8월 말 기준 사업비 집행 미비 사유

- 울산 이산화탄소 규제자유특구의 8월 말 기준 전체 사업비 지급액은 30억원으로 총 사업비 47억원의 66% 수준임
 - 인프라 조성 및 사업화 지원은 8월 말 기준 총 사업비 28억원 전액 집행 되었으나
 - 실증R&D의 경우 총 사업비 18.6억원 중 3.3억원(총 사업비의 18%)이 집행되었음
- 이는 기재부로부터 자금배정이 '21년 예산 대비 70%(1,110억원)에 그치고 6월 이후 코로나 19에 따른 균특회계 세수 부족* 등으로 자금배정이 중단됨에 따름
 - * 규제자유특구 예산은 주세(酒稅)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임
- 중기부는 배정된 자금을 8월 실증 종료된 1차 특구에 우선 교부(100%)하고, 2~4차 특구는 사업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순차 교부
 - * 차수별 집행율 : 1차특구(100%), 2차특구(63%), 3차특구(60%), 4차특구(57%)
- 울산 이산화탄소 특구는 8월 말 기준 '21년 예산 47억원 중 30억원(64%)을 교부 받아 4차 특구 평균 교부율(57%)에 비해 높은 수준
 - 다만, 다만 실증참여인력 인건비 재원 등으로 지급되는 실증 R&D사업에 '21년 예산의 18%를 교부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나
- 특구 현장의 인건비 미지급 상황 등을 들어 기재부에 규제자유특구자금 우선 배정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9월 사업비 12.4억원 교부완료(전체 사업비 92% 집행, 실증R&D 85%집행)